

담양군보건소와 합동 진료현장

어르신들 대상으로 결핵 홍보 캠페인

글과 사진_박연숙(본지기자)

대나무의 고장, 연인들의 필수 데이트 코스 메타세쿼이아 길, 담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다. 최근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될 것 같다. 바로 담양군보건소가 2007년도부터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노인 안(眼)검진 및 개안수술' 프로젝트다. 주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서 실시되고 있는 담양군보건소의 안검진 프로젝트는 최근 들어 점점 다각화되는 보건소의 건강정책을 엿볼 수 있는 사례다.



담양군보건소와 대한결핵협회가 함께하는 검진을 받기 위해 삼삼오오 몰려드는 주민들.

지난 2월 26일, 담양문화회관 앞.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삼삼오오 주민들이 몰려왔다.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담양군보건소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한 인파는 순식간에 문화회관 로비를 메웠다. 안(眼)검진 프로젝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포근한 날씨가 예상됐었는데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 탓에 검진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는 순식간에 해소됐다. “날씨가 따뜻하면 일하러 나가셨을 텐데, 추워서 일 손 놓고 많이들 오셨나보다”는 관계자의 긍정적인 해석에 일행은 모두 웃었다. 추운 날씨지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은 등록을 하고 번호표를 부여받아 차례대로 치매검사와 안과검진, 엑스레이검진을 시작했다.

“오늘 600여 명 정도가 오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600명 정도라면 결코 녹록치 않은 숫자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가 좋고, 서로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검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하루 일정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② 엑스레이검진을 실시하고 나온 주민들에게 결핵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과 불편을 나누어주고 있다.

검진이 진행되는 동안 담양군 보건소 염권철 소장이 현장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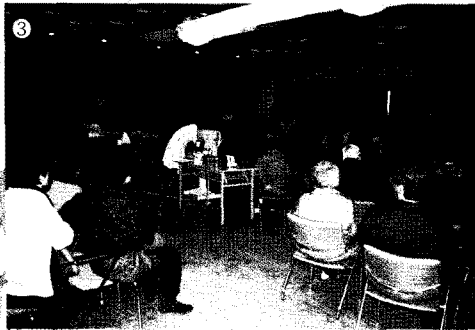
“시골마을 대부분이 그렇듯 담양군내에는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도시로 자식들 보내놓고 홀로 남은 가슴 짠한 분들이죠. 혼자서는 건강검진 한 번 받기 힘든 이 분들이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보건소가 할 일입니다. 대한결핵협회가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이야기 중에, 가슴 짠~한 분들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담양군 인구 중 24%가 노인인구라고 한다. 노인인구 비율이 30%가 넘는 곳도 많은 것이 농촌의 현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노인들끼리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갖고 있는 안질환, 그 중 당장 수술이 필요하고 형편이 어려운 분부터 차례차례 수술을 받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담양군보건소 안검진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는 담양군보건소가 실시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해 엑스레이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담양군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를 근거로 살아가는데, 아무리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준다 해도 농사일 제쳐두고 한 번 발걸음 하기가 쉽지 않은 일. 어렵게 시간을 낸 만큼 다양한 검진서비스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검진활동을 통해 세 명의 결핵환자를 발견한 성과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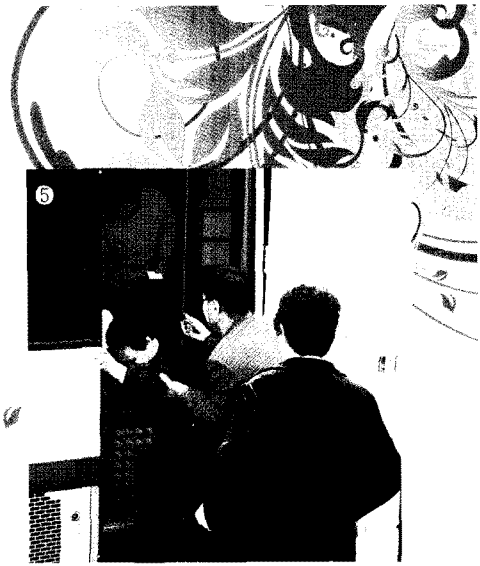
3 안과검진이 이루어진 문화회관 강당. 정내를 가득 메운 주민들이 아이비 검진의 호응도를 짐작케 한다.



4 안과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자.

이날 검진에서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는 결핵이 어떤 병인지를 알릴 수 있는 홍보패널을 전시하고, 엑스레이 검진을 실시한 후 간단한 홍보물과 볼펜 등을 나누어주는 등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캠페인을 벌였다.

안에서 진행되는 다른 검사와 달리 회관 밖 이동검진차량에서 진행되는 엑스레이 검진은 예상밖의 추운 날씨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강아지, 고생한다”며 손 꼭 잡아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걱정 한 마디에 금세 추위도 비껴버리고 마는 따뜻한 현상이었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검진차량에 안전하게 올라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와 담양군보건소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담소를 나누고 있는 광주전남지부 이원철 본부장, 담양군보건소 염권철 소장.



광주전남지부는?

1955년 9월 창설되었다. 현재는 광주전남지역의 결핵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복지자의원에서는 결핵 및 호흡기 관련 질환을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등 소신있게 결핵퇴치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